

2023년 05월 14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에베소서 6장 1~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428(통48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24장 1~25절(신약p.783)

1.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2.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 떼를 빼앗아 기르며
3. 고아의 나귀를 몰아 가며 과부의 소를 불모 잡으며
4.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세상에서 학대 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5.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6. 밭에서 남의 꿀을 베며 악인이 남겨 둔 포도를 따며
7.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8.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9.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불모 잡으므로
10.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11.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 틀을 밟느니라
12.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13.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14.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 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 같이 되며
15.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16.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니
17.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 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앞이니라
18. 그들은 물 위에 빨리 올라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19.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20.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썩이리라
21.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22.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23.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24.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25.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라

## ◎ 말씀선포 / 옴이 말하는 악인

옴이 말하는 악인

옴기 24장 1~25절

악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비결입니다.

옴의 친구들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옴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악한자가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옴에게 일어났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행하며 더욱 순전함으로 행했던 옴이었고, 분명이 하나님께서도 옴을 의인이라 인정하셨지만, 그러한 옴이 고난을 당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옴은 자신이야말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길 간절히 갈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옴이 말하는 악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1. 악인은 약자에게 해를 입힙니다.

- 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인들의 행위를 나열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 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 가며 과부의 소를 불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 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악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을 남용해 약한 자들의 소유를 탈취함으로 자신들의 이기적 탐욕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인 고아와 과부들에게 해를 입힙니다. 가난한 자들의 양 떼를 빼앗고 가축을 강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인들을 피해 숨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옴은 이러한 이들을 자행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는지 반문합니다. 성경은 사회적 약자에 관하여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하였고, 신명기 24장 21절에서는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시며 구체적인 행동 방식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고대 중국의 왕도에서도 “환과고독” 즉 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 젊고 남편이 없는 사람, 어리고 부모가 없는 사람,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 홀아비와 과부, 고아 및 자식이 없는 연로한 자는 우선적 구제의 대상으로 간주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랑의 실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옴이 언급한 일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체불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용해 오히려 더욱 괴롭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악한 일들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이 세상을 사는 올바른 처세술이며 성공으로 이끄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큰소리치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악한 자가 되셔서 세상의 가난하고 악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자 즉,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행한 그일을 아시고 갚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으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악한 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가난하고 악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2.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 옴은 악인들을 “빛을 싫어하는 자들” 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

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피해 숨으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이심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고, 9~10절에서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생명의 빛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바로 이러한 빛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피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영광과 생명의 빛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낱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밤낮으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이 이끄는 대로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시편 저자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썩어서 더럽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불의의 가장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이 가장 큰 악이요, 근본적인 악이라는 것입니다. 욕은 악한 자들의 결말을 예고합니다. 본문 18~20절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니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들은 홍수에 떠내려가게 될 것이며, 그의 발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 24~25절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한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들의 번영은 잠시 후에 사라지고 풀처럼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욕은 악인들에게 내려질 결말을 언급하면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평안에 취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평안할 때 악행에서 돌이켜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촉구합니다. 악은 선하게 살고자 결심하는 것만으로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나와야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악한 방식으로 이웃을 이용하거나 억압해 부와 명성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롬12:1). 성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 성공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상급에 삶의 목적을 두며 더욱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더욱 겸손하여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540(통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이니

## ◎ 폐 회 / 주기도문